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지난주, 필자가 존경하던 선배 두 분이 돌아가셨다. 그분들과 웃고,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수년 전만 해도 친구 부모님들의 장례식 조문이나 많았지만 이제는 주변 선배들의 부고 소식이 더 많으니 새삼 ‘피니싱웰(Finishing-well)’에 대해 생각해 본다. 90년 가까운 생애 동안 세계환경의 격변, 삶의 변화를 몰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다가 돌아가신 한 선배의 모습을 거듭 떠올려보는 요즘이다.

피니싱웰은 대학의 전임 총장이었던 고(故) 존 엔디컷(John E. Endicott) 박사의 삶은 수많은 도전과 변화가 담긴 한 편의 영화 같다. 군인에서 대학교수, 낯선 타국의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변화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도전과 용기로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ROTC생활과 학업을 병행하였고 졸업 후 공군 소위로 입관해 군 복무를 시작하였다. 일본, 하와이, 베트남 등 전진터에 투입되는 등 군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 최고공로훈장을 받았다.

전역 후 1986년 국방부 산하 국가전략 연구소장 등

‘피니싱웰(Finishing-well)’, 멋진 마무리란

을 역임한 후,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에서 교수로서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국제전략기술 정책센터 소장 겸 샘턴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군에서 경험한 이론과 실무를 토대로 국가 방위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고, ‘동북아시아 비핵화구역(LNWFZ-NEA)’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런 공로로 두 번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70을 넘기 나이에 낯설고 물선 한국 땅에서 대학 총장(2009년 취임)으로 세 번째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당시로는 참신한 글로벌 대학의 모델을 실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100%로 진행되는 영어수업과 다양한 국가의 학생, 교수 선발 등 다문화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국제경영대학 모델을 구축해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을 받는 등 안정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였다. 국제대학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과학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했는데,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업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명명된 ‘엔디컷국제대학’을 생애 가장 큰 명예로 여기고 2021년 퇴직하여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갔다.

평생동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고(故) 엔디컷 총장의 삶에서 나는 많은 배울 점을 보았다.

첫 번째는 도전정신이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 이후에도 연구소장, 대학교수,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의 대학총장까지 다양한 변화에 망설임 없는 도전으로 임하면서 나이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개척정신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주변과 협업해 나아가는 열린 마음이다.

군 생활 중에 여러 과전국가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키웠으며, 이해 관계가 얽힌 동북아의 비핵화 문제 등 다수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명하게 해결했다. 또 낯선 한국 땅에서 총장으로서는 대학을 경영하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 교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한번 만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리더의 본보기와 같은 자세였다.

세 번째는 낙관적인 삶의 태도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터, 두 번의 큰 수술, 타국의 낯선 문화환경 등 삶의 고비 앞에서도 그는 늘 낙관적이었다. 작년 미국 출장 중 그를 만났다. 부쩍 아위어 보여 물어보니,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간호하느라 살이 빠졌다. 오히려 아내 덕에 다이어트가 됐고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받은 도움을 이제야 갚는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아내를 만난 일’이라고 웃으며 대답하는 그와의 마지막 만남은 힘들 속에서 도 긍정과 감사를 선택해 왔던 그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했다.

가까운 선배, 친구들의 부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울적한 마음에 빠져들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내본다. 도전정신, 따뜻한 마음과 열린 자세, 낙관적인 삶의 태도로 아흔 평생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엔디컷 총장의 모습에서 필자도 어떻게 피니싱웰(Finishing-well)해서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여운을 남길지 고민해본다.

社說

외면받는 무등산, 취약한 광주 관광 보여준다

국립공원 무등산이 탐방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압울하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방문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고, 수도권 탐방객이 가장 적은데다 만족도 또한 낮아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포커스에 따르면 2018년 314만 명이던 무등산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245만 명으로 70만 명 가까이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240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조건이 비슷한 도시근교형 국립공원인 계룡산과 북한산의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무등산 전체 방문객 중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10.4%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낮고, 60대 이상이 30.8%를 차지하는 것도 무등산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부족한 편의시설과 망가지진 입도 등 열악한 탐방 인프라로 인해 장애인·어린이 등

탐방 취약계층의 방문 비율이 국립공원 평균의 절반에 그친 점도 문제다. 이렇다보니 한번 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비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탐방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광주연구원은 열악한 탐방 인프라 개선과 무등산 정상부에 있는 군부대와 방송탑 이전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별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 마련과 무등산 브랜드 강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무등산의 위기가 광주의 관광 경쟁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수도권 거주자 탐방객 비율이 20% 안팎인 내장산·지리산·월출산 등 호남권 타 국립공원의 절반에 그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노점 도시’ 광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등산으로 외지 탐방객들을 불러들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이초 순직 1년, 교사 향한 고소 남발 막아야

우리 사회에 교권 회복 운동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학생들의 결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교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제자인 학생과 그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목숨을 끊을 정도였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나아가 교사들의 교육과 지도를 폭력으로 치부하고 괴롭힌 학부모들에 대한 분노도 들끓었다.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그렇다만 서이초 순직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교사들은 여전히 제갈할 수 있는 변화는 없고,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고소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교육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사·전남도교육청

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교권 침해신고는 2019년 180건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95건으로 줄었지만 곧바로 2021년 164건, 2022년 209건, 2023년 36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성장이 학생들은 수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정상이고 일상이다. 하지만 이런 일상 사건을 교사의 판단이나 중재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교사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와 화해를 이끌어 내거나 심지어 학폭위를 통해 사건이 일단락되도, 학부모들에 의해 수사나 소송으로 비화되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학교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현주소 순직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교사들은 여전히 제갈할 수 있는 변화는 없고,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고소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교육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사·전남도교육청

종교칼럼

황광은 동화집 ‘냄새가 난다’를 떠올리며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어릴 적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깨어 있던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성경이야기나 옛날이야기 같은 것도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동화도 많이 이야기 해주셨다. 시골에서 평생을 목회 하셨지만 다른 집과는 다르게 서재에는 책들이 많았다. 그 이유로 어린 마음에 나름대로 어찌가 으스스해지는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었다. 나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서 아버지께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고 물었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를 따라 떠들떠들 그 제목들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쳤다. 그리고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는 나에게 어울리는 책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중에 생각나는 동화책이 있는데 바로 ‘황광은 동화집’이다. 1975년도에 기독교어린이 문화관출판부에서 출판한 책이었다.

황광은 목사라는 분은 1923년 2월 25일 평북 용천에서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황동성 장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 앞에는 ‘목회자이자 웅변가’, ‘아동문학자’, ‘사회사업가’, ‘아이들의 동무’, ‘고아들의 형님’, ‘목회자의 빛’, ‘가난한 자의 이웃’, ‘소년단

간사장’, ‘YMCA 간사’, ‘기독교교육협회 간사’, ‘난지도 소년시 시장’ 등 다양한 수석어와 직함이 붙을 만큼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했다. 전쟁 발발 후에는 제주도 한국보육원 옆에 움막집을 짓고 고아들의 벗이 되었고 1952년 서울 난지도에 한국보이스타운(삼동 소년촌)을 건설해 고아와 불우 청소년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했다.

어릴 때부터 예술에 소질이 있었던 황광은 목사는 아동문학에도 열정을 쏟았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957년 ‘빛을 따른다’는 의미를 담아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문학을 이해하는 교계인사들과 ‘해바라기회’를 창립하고, 1년에 작품 한 편 이상씩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해바라기 이름으로 동화집 한 권씩을 내기로 했다. 황 목사가 남긴 작품은 ‘날아가는 새 구두’ ‘노래하는 섬’ ‘호루라기 부는 소년’ ‘춤추는 열두 공주’ ‘숲 속의 할머니’ 등이 있다.

아버지 서재에 있었던 ‘황광은 동화집’은 여러 단편들이 수록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은 ‘냄새가 난다’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글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어떤 아이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의 근원지를 찾아 하루 종일 헤매지만 끝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고약한 냄새의 원인이 사실은 자기 코 밑에 고약이 배설물이 묻어 있어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고 다른 곳을 그렇게 찾아 다녔다는 내용이다. 냄새의 원인을 알아차린 아이는 코 밑에 묻은 배설물을 물로 깨끗이 씻어 내

고서야 비로소 그 냄새가 사라지게 된다. 피식할 내용이지만 결국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삼는 잘못을 꾸짖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내면 그 고약한 냄새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냄새 나고 더러운 발을 손수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럽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시다. 자식이 오물을 뒤집어써거나 배설물 통해 빠졌다고 버리는 부모는 없다. 나도 어릴 적에 한 쪽 발이 배설물 통해 빠진 적이 있었다. 즉시 어머니는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옷과 신발을 세탁해 말리셨다. 그 후 그 냄새는 모두 사라졌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는 먼저 안아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싸여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바울서신 교린도후서 2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의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 나갑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혹시 자기에게서 풍기는 악취를 알아차리고 못하고 다른 것에 핑계되며 스스로를 위선자로 사는 것은 아닌가. “냄새가 난다”는 비록 짧은 어린이 동화이지만, 신앙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기고

고령화 사회, 소비자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박훈철  
광주소비자연맹 부회장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소비여력이 점점 높아진 고령층이 TV 흡소품,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소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소비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령층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유지하고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비자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 안전예방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통한 고령 소비자 교육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두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인을 노린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전화사기, 금융 사기, 방문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매 순간 진화하고 있어 단순한 일회성 교육 또는 각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안내

형태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일보된 고령층 소비자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사기수법 등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으로 현명한 소비생활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소비자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첫째,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지역 사회 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노인층의 이해도와 관심사를 반영한 최근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관공서 홈페이지, 지역신문,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노인층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도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을 비치한다.

넷째, 피해 사례 공유와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노인층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인층도 적극적으로 소비자권리를 위해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사기 수법을 인지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

을 요청해야 함은 물론 교육받은 내용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소비자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과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소비자교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고령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더불어 기존의 소비자 보호 중심의 소비정책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전환 시점에 소비자 역량 함양을 소비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고, 체계화된 소비자 정보 제공과 반복적인 교육에 사회 전체가 역할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고령화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점점 가속화되어 갈 것이며, 산업사회는 AI나 기계를 활용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고령층이 산업화되어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비주체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고령층 소비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광주소비자연맹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無等鼓

KIA 양현종이 삼성 이성규에게 볼넷을 내주자 정재훈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했다. 9-5로 앞선 5회 2사 1·2루, 양현종이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기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은 상황. 투구 수는 87개에 불과했지만 잠시 뒤 양현종은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지난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시즌 9차전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다.

‘대투수’로 불리며 통산 174승을 기록한 베테랑이지만 ‘초보 사령탑’ 이범호 감독은 단호했다. 승부수를 던진 이 감독은 김대우를 막고 10-5 승리를 이끌었다.

야구는 철나의 스포츠다. 공 하나하나에 승부가 요동친다. 3시간 넘게 승부가 펼쳐지는 종목이지만 마지막 1-2초로 승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볼넷이 나오자 이 감독은 빠르게 또 과감하게 움직였다. 초보 감독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앞선 89경기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이 장면은 ‘승부처’라고 봤다.

이 감독은 지난 6월 25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날 KIA는 롯데 선발 나군안을 상대로 맹공을 펼치며 4회초 14-1을 만들었지만 경기는 연장 12회, 15-15 무승부로 끝났다. 불펜 상황이 좋지 않기도 했고 선발 제임스 네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KIA는 역사적인 패배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실패를 교훈 삼은 초보 사령탑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일 LG 원정에서도 2점 차로 꺾인 9회 2사 1·3루에서 직접 마운드에 올랐다. 이 감독은 “동점을 허용해도 된다”며 자신 있는 대결을 주문했고, 경기는 KIA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당시에도 이 감독은 팀 승리를 생각하며 움직였고, 결과는 패배로 돌아왔다.

물론 양현종에게는 힘든 하루였을 것이다. 이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턱아웃에 있던 양현종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하면서 위로했다. 냉정했던 그라운드의 승부사는 ‘형님 리더십’으로 턱아웃을 다독였다.

지도자는 큰 그림을 위해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승리를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가야 우승이라는 결승선에 이를 수 있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 항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